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의 장 “따숨마켓 X 세틀마켓”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지난 주말 10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따숨마켓 x 세틀마켓’ 행사가 독립기념관 광장 입구에서 열렸다. 이는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 및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전으로서, 갑작스러운 한파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방문으로 행사장은 북비는 모습이었다.

이번 행사는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독립기념관이 협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촉진을 위한 ‘따숨마켓’ 기획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0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주말을 이용하여 총 10일간 진행되는 ‘따숨마켓’ 행사는 독립기념관과 충남의 사회적경제 광역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그 규모와 기간, 횟수를 더욱 확대하여 기획되었다.

지난 1차 따숨마켓에 이어 세틀마켓과의 협업으로 지역소상공인까지 참여한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 예비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등 총 1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들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도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었다.



세틀마켓 현수막 사진



따숨마켓x세틀마켓 판매 부스 전경

많은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스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부스를 찾아 참가목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먼저 방문한 부스는 협동조합 초록잎담뱃으로, 이들은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산촌 지역 경제활동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자연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숲길 체험, 목재를 활용한 공예체험 등 체험과 교육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수피아'는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중학교 진로 수업을 진행하고 석고 방향제 등의 공예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원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우드리페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후한 집의 하자를 수리해주는 봉사 활동을 한다. 단독주택 거주 시, 간단한 수리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농촌 현지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목공 교재와 목공 키트의 판매 수익은 지속적 봉사를 위해 쓰이며, 탄소중립 같은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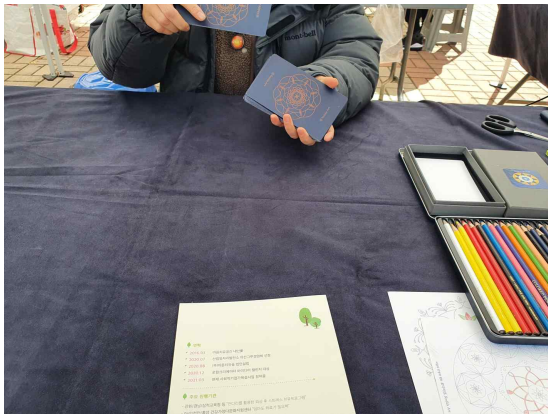
협동조합 '초록잎담뱃' 현장 부스.



예비사회적기업 '우드리페어'의 현장부스.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활동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마음치유숲'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심리상담봉사를 병행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텃밭에서 키운 재료로 요리해 보는 비건베이킹, 로컬푸드 그리고

명상스쿨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음치유숲에서 카드 상담심리를 받는 모습



사자산영농조합법인 현장부스

예비 마을기업 ‘사자산영농조합’은 청양군 농민이 직접 재배한 고추, 구기자 등 지역 내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읍,면 단위로 시작하여 활로를 개척하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이 현재 청양군 전체의 판로 구축 노력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영농조합 관계자분은 대부분의 상품은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글로벌스토어인 아마존의 입점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 대부분의 참여 목적은 판매보다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확산을 홍보하고자 함이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오픈마켓 형태의 판매기회가 많이 취소되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을 찾아 온 관람객들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에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다른 소상공인의 판매물품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등에서 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부족해 보였지만, 이러한 마켓과 같은 기획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들의 활동이 지역 내에서 점차 홍보되어 사회적경제의 굳건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갑작스레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붐비는 마켓의 모습

‘지역을 따뜻하게, 자연에 숨을 불어넣는 따숨마켓’ 행사는 앞으로도 10월 5째주(30일, 31일), 11월 2째주(13일, 14일), 11월 3째주(20일, 21일) 주말을 이용하여 3차례 6일간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참여 문의 :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041-417-1107: 마을기업),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041-417-001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